

서울시 연간 탄소저감 목표 달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서울
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청원심사규칙」에 따라 김민철 외 68명의 시민이 제출한 「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새정마을 계획적 존치 검토에 관한 청원」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본 청원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서울시는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해당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, 지구 내 새정마을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한 계획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청원인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, 지구 지정 이후 수립될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계획 단계에서 새정마을의 ‘계획적 존치 가능성’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

○ 청원서에 따르면, 새정리마을을 전면 철거하고 약 53,000m² 규모로 신축할 경우 약 53,884톤의 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 이는 서울시 연간 탄소 감축 목표의 약 5.7%, 건축물 부문 감축 목표의 약 19%에 해당하는 수준으로, 단일 사업으로는 적지 않은 영향이라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전면 철거 방식이 서울시의 중장기 탄소감축 경로와 정합적인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

○ 또한 청원인들은 기존 마을을 존치한 상태에서의 토지이용계획 수립, 신규 단지와 연계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이는 도시개발과 기후정책의 조화를 모색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.

○ 본 청원은 개발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,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존치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. 도시개발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,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.

○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